Volume
31

www.kawf.kr

예술:ㅅ

Artists Welfare Magazine

예술, 삶의 힐링을 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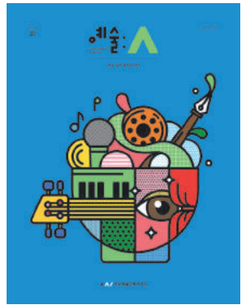
www.artloan.kr

삶을 예술로, 예술을 삶으로.

예술인을 위한 융자 서비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작!

2019년 6월 24일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본격 운용됩니다.

Contents



일러스트 한달래

Theme : **예술과 힐링**

02 **포토에세이**
삶, 예술로 힐링하다

10 **테마에세이**
강물의 비단잉어를 위하여

12 **테마인싸뷰**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

14 **테마인사이트**_뮤지컬 마니아
뮤지컬은 나의 소우주

16 **테마인사이트**_클래식 마니아
음악과 나

Cover Story

–

숨 쉬고 밥 먹듯 이어지는 일상 속,
긴 호흡으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공원의 조각이, 귓가를 스치는 클래식이, 꼬부라진 골목길의 벽화가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숨 쉬고 밥 먹듯,
예술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곧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을 닮고 담는 까닭입니다.

Bravo! Artists

20 **예술인 레터**
계약의 기술, 혹은 예술

22 **인터뷰**
더 행복한 영화판을 꿈꿉니다_김원훈 제작실장
공장노동자에서 청년예술인으로_김동식 작가

30 **스토리**_청년예술인
청년예술인으로 산다는 것
당사자의 언어로 정의해야 할 때

36 **예술인의 點心**
나의 점심은 休…쉼_김지수 미술감독

40 **예술인의 집**
이상하지만 이상적인 이상의 이상향
–시인 이상의 집

45 **예술인 앞과 뒤**
종이아빠, 당신의 정체는_박성찬 무대감독

Viva! Artists

52 **KAWF 레시피**
창작준비금 맛집의 레시피 파헤치기

54 **KAWF 상담실**
〈기생충〉을 계기로 다시 보는 표준계약서
예술인이 묻고, 재단이 답하다

58 KAWF News

60 **예술인패스**

예술:A
Artists Welfare Magazine
Volume. 31

발행 2019년 8월 23일 **발행인** 정희섭 **편집인** 정철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전화** 02-3668-0200 **홈페이지** www.kawf.kr
기획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02-515-3681 **비매품**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삶, 예술로 힐링하다

시.선.을 맞추다.

도심 건물 속 청동 조각상에
공원 한켠 열린 피아노 건반에
강 둔치에 줄 지어선 핑크 펭귄에
풀뿌리를 닮은 풀밭의 나무 벤치에
어느 골목, 아무개 집 담벼락의 벽화에

그렇게

예술이 보인다.

자료협조: 한강사업본부단(Root Bench_Yongju Lee)

자료협조: 국립국악원(우면산 별밤축제)

소.리.에 기울이다.

피아노, 바이올린 선율에
꽹과리, 장구 두드림에
소프라노 가수의 노래 한 소절에
전통소리꾼의 판소리 한 대목에
헤드셋 음률과 휴대폰 울림에도

그렇게

예술이 들린다.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면 예술이 있다.
눈 맞춤 없고, 귀 기울이지 않아도 예술은 있다.
예술은 언제나 삶과 함께였으므로….

그래서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더 흥미롭게 하는
예술에서 삶은

위로받고,

더 흥미롭게 하는
예술에서 삶은

힐링한다.

일상에서 만나는 예술은 _____ 그래서

쉼이 되고

힐링이 되고

행복이 된다.

자료협조: 한강사업본부(Cracking Art for Hangang)

예술이 있어 세상은

행복하고,

행복한 세상은

예술이 만든다.

테마에세이

강물의 비단잉어를 위하여

강선애(더하우스콘서트 수석 매니저)

'더하우스콘서트'에서 기획, 운영, 홍보를 총괄하고 있다. 2015년 한국공연예술경영인협회에서 수여하는 '젊은 공연기획자상'을 수상했으며, 더하우스콘서트의 음악방송인 〈소심음감〉에서는 진행자로서 음악과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년 9월,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전교생 60여 명이 모여 앉았다. 오른손 선율이 쉴 새 없이 빠르게 연주되는 슈베르트 '즉흥곡 제2번(D.899)'이 끝나자 박수를 터트리는 꼬마 관객들에게 피아니스트가 물었다.

"빠른 곡이 좋아요, 느린 곡이 좋아요?"

"빠른 거요!"

"그럼 이제 아저씨가 빠르고 느린 게 반반씩 섞인 걸 칠 건데, '라시미솔솔~' 하는 멜로디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윽고 슈만의 '아베크 변주곡'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피아니스트의 설명처럼 '라-시-미-솔-솔' 하고 멜로디가 시작되자 꼬마 관객들의 귀가 쫑긋 섰다. 벌써 익숙해진 그 멜로디는 연거푸 이어졌고, "어, 또 나왔어!" 하며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다.

이 공연을 함께한 '아저씨'는 바로 피아니스트 김선욱이다. 초등학교 공연은 처음이라고 말했던 그는 처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연주하면서 공연을 이끌어갔다. 이 공연을 위해 그가 구성한 프로그램은 바흐의 파르티타,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2악장, 슈베르트의 즉흥곡 제2번, 슈만의 아베크 변주곡 등 모두 호흡이 긴 곡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공연 며칠 전 프로그램을 전달받고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 곡목을 조금 바꾸면 좋겠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야 했던 그 프로그램이다. 곡목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됐다. 김선욱이 했던 이 말에 우리가 오히려 설득 당했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도 이런 음악을 들을 기회가 있어야지요."

얼마 전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석 첼리스트 심준호와 함께 경남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하우스콘서트를 가졌다. 공연을 관람한 200여 명의 관객들은 악장과 악장 사이에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곡과 곡 사이에도 기침소리조차 내지 않는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서울의 여느 공연장에서도 보기 힘든 관람 매너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나는 그 힘이 오랫동안 철학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지속해온 데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인구 6만 6천 명에 불과한 이 작은 군소도시에서의 하우스콘서트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클래식,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중심으로 때로는 현대음악, 현대무용 등 실험적인 무대까지 시도해왔으며,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은 지양하면서 익숙한 음악과 익숙지 않은 음악들을 병행하고 있다. 그것은 순수예술에 대한 적절한 안배를 위해 '하우스콘서트'를 오랫동안 이끌어가며 극장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만들겠다는 함안문화예술회관의 남다른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함안의 관객들은 언제나 진지한 태도로 공연을 관람해왔는데 현대음악이나 현대무용도 있는 그대로 흡수했다는 점이 늘 놀라웠다. 이들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다고 말했고, 그렇게 다양한 장르를 편견 없이 흡수하며 7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들이 유의미했음을 이번 관객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삼 깨달았다. 공연 관람 매너,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시각,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자세들은 무의식적으로 차곡차곡 축적된 것이리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공연을 진행하다 보면 관객들의 예술적 경험을 가로막는 것은 관객의 자의적 선택이 아닌 오히려 공연을 만드는 주최자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지역에는 순수음악 인구가 없다, 순수음악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기획자들에 의해 가장 먼저 경험의 기회가 가로막힌다. 공연이 열리더라도 대중적인 곡이나 귀에 익숙한 클래식의 선곡이 반복되며 새로운 음악을 접할 기회가 상실된다. 때로는 무대에 오르는 아티스트에 의해 가로막힌다. 지역 관객들의 문화적 경험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 또다시 자주 듣게 되는 익숙한 음악들이 선곡된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초등학교에서, 미술관에서, 박물관에서, 공연이 열리는 전국의 다양한 장소들에서 관객들은 그렇게 경험의 기회를 반복적으로 상실하고 있다.

비단잉어의 한 종류인 '코이'는 작은 어항에 두면 5~8cm까지, 연못에 두면 15~25cm까지, 강물에 방류하면 1m 넘게 자란다고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만큼 성장하는 비단잉어처럼 사람도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느끼는 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모르지 않는다. 그 이유로 더 많은 세상을 접하려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책을 읽으며 공부를 멈추지 않으려 한다. 예술적 경험 역시 이와 같다.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많이 접할수록 개개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나는 함안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수많은 공연을 통해 확인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관객이 점차 많아질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술가들의 무대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 지역의, 나아가 한 나라의 문화 의식 수준이 성숙해지리라는 것이 지나친 비약은 아니리라 믿는다. 예술작품이란 애초에 창작자의 오랜 사유의 결과물이지 누군가가 즐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예술가들이 스스로 눈높이를 낮출 것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그것이 기획자와 예술가 모두의 역할이고 의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깨닫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인천공항 의뢰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우리가 기획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현대한국무용단의 공연을 기획했지만, 현대무용은 난해하다는 이유로 공항 측으로부터 여러 번 재고를 요청받았다. '관객의 수준을 먼저 낮추지는 말자'는 의도로 밀어붙인 오늘 무대는 우리의 예상대로 공항을 지나는 내외국인들의 시선과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잠시 발길이 머무는 무대에서도 우리 스스로 예술성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기획자로서, 예술가로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하는 가치다.

테마인싸뷰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 일상에서 답을 찾는 중?

〈젊은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 展에 참여 중인 이은새 작가

이은새

홍익대 회화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갤러리조선,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틈: 간섭: 목격자/들〉과 갤러리2에서 〈길티-이미지-콜로니〉, 대안공간 루프에서 〈밤의 괴물들〉로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젊은모색 2019: 액체 유리 바다〉전과 교보아트스페이스에서 2인전 〈낫띵〉에 참여 중이다.

예술 또한 소통의 한 장르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이들, 창작자이자 예술가들을 사람들은 흔히 대중과는 동 털어진 아웃사이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통해야 하고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인사이더'여야 하지 않을까. '핵인싸'라는 신조어가 필요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분야 또한 예술계다. 최근 핫한 전시계의 인싸, 이은새 작가가 그 주인공인 이유다.

"주로 유화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면서 쉽게 대상화되는 인물들에 관심을 두고, 규정되거나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피사체들을 그리고 있지요."

어릴 때부터 그리는 게 좋았고, 자연스러웠단다. 그래서 선택은 수순을 밟듯 회화과에 진학, 지금의 모습이라는 이은새 작가. 지난해 대안공간 루프에서 개인전 〈밤의 괴물들〉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그림을 전시한 데 이어 올해 또한 두 개의 큰 전시에 참여하느라 일상이 분주하고 바쁜 작가는 이런 와중에도 종종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혼자 웃기도 하지만, 그러다 금세 작가 자신이 구현하는 이미지들처럼 해체되곤 한다고.

〈크림파이를 위한 변명〉, 2016

개인전 〈밤의 괴물들〉의 전시현장, 2018

〈아이스크림을 자르려는 사람들〉, 2014

"일부러 영감을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떠오르는 일상의 관심사, 뉴스나 인터넷, SNS에서 흘러가는 정보들을 접하는 것이 작품의 영감이 되곤 했지만 최근에는 저의 기억이나 친구들의 이야기, 상상하는 것들 등 저에게 가까운 일들을 바라보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시각화하는 작업'이 자신의 일이라는 작가는 일상이나 현상 속 의문을 작품에 투영하다 보면 명확한 구상보다는 이미지가 해체되는 추상적 느낌을 구현하게 된다고 한다. 자신이 읽고 있던 소설의 한 부분에 등장하는 얼어있는 커피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을 자르려는 사람들〉의 작품으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며 느낀 생각이 〈크림파이를 위한 변명〉이라는 작품으로 탄생한 것처럼.

"나는 왜 그림을 그리고 있지? 예술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은 숙제처럼 항상 갖고 있지만, 이 또한 명료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네요. 꾸준히 저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작품을 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답을 찾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우문(愚問)에 대한 현답(賢答)인가? 답을 찾는 게 예술은 아니지 않을까. 작가는 일상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예술을 하는 것이고 예술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임을 시사한다. 일상 속 독특한 시선과 생각, 이미지를 작품화하는 이은새 작가의 다음 행보와 전시가 기대된다.

테마인사이트
(뮤지컬 마니아)

뮤지컬은 나의 소우주

글 **부소정**

문화예술채널 '컬처블룸' 대표이자 데일리한국 문화부 기자이다. 작사가와 독서지도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로 있는 문화예술채널 컬처블룸은 뮤지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만들어졌다.

"마치 내 몸 안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소년 빌리 엘리어트가 춤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그는 자신 안의 불을,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을, 위의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내면의 에너지 폭발, 그렇다! 이건 내가 뮤지컬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느낌이다! 마치 핏속에서 불꽃이 튀는 느낌, 선율에 전율하고, 배우들의 호흡에 내 호흡을 맞추며, 웃고 울며 살아있다는 느낌! 현실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그 느낌!
이건 강렬한 첫사랑 같은 것이었다. 한여름의 소낙비처럼 짧고 강하게 쏟아졌지만, 지워지지 않은 낙인으로 뮤지컬은 내 가슴에 남았다. 커튼콜 때 용수철처럼 기립하고, 퇴장하는 동안 퍼지는 피날레 음악을 끝까지 듣고도 한참을 자리에 머무른다. 기꺼이 배우들이 관객석에 친 거미줄에 걸려들고, 감동으로 버둥거린다. 함께 감동한 객석의 소위 '뮤덕'들과 묘한 유대감 내지 동지의식이 생기면서 희열감을 느낀다. 중증 뮤지컬 마니아인 셈이다.

뮤지컬을 보며 또 한 번 강한 문화충격을 받은 것은 '엘리자벳'이었다. '죽음'을 의인화해 신비롭고 치명적인 존재로 부각시킨 점이나 해설자가 따로 무대 밖에 있지 않고, 중간중간 주변인으로 등장한다는 점 등이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엘리자벳 여왕이라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따라가면서도 국제 정세와 인물 간의 갈등, 내면의 갈등이 모두 녹아들어 있고, 기묘한 삼각관계와 죽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감정선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뮤지컬 '엘리자벳'을 본 이후에는 뮤지컬을 '보고 싶다'를 넘어서서 '하고 싶다'로 전환됐다. 그냥 향유가 아니라 뮤지컬 언저리에서 뭐라도 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 길로 뮤지컬아카데미를 알아보고 이론서를 구입했으며, 대본 습작을 하기 시작했다.
뮤지컬아카데미에서도 뮤지컬창작수업을 듣기 이전, 이 장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했기에, 뮤지컬 이론과 역사, 유통, 마케팅, 펀드 등 닥치는 대로 수업을 들었다.

어릴 때 나는 문학과 음악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했다. 동생들은 이미 뛰어나게 잘하는 각자의 예술 분야가 있어 크게 고민이 없었지만, 이 분야 저 분야 비슷비슷한 역량을 보였던 나는 하나를 선택하려니 내적 갈등이 심했다. 이 말은 그 어느 것도 동생들처럼 빼어나게 잘하질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소질만 있는 장려상 같은 인생. 그래서 한 가지에 출중한 동생들과는 비교가 많이 돼 열등감 속에서 성장했다. 특히 첼로는 내겐 열망이자 아픔이었다. 나는 결국 동생들과는 다르게 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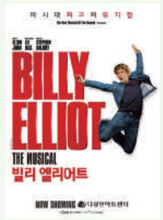
음악 등 가지 않은 길에 대해 큰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은 갈증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내게 뮤지컬이 가진 '종합예술'이란 특징은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줬다.

내가 쓴 가사에 작곡가가 곡을 붙이고, 연출이 무대에 입체화를 한다. 무대와 음향과 의상과 조명 등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통합되는 과정은 실로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뮤지컬 창작수업 시간에 내가 쓴 가사에 작곡가가 음악을 입히고, 뮤지컬 낭독발표회에서 배우가 내 작품을 연기해주면 거의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정말 전기가 통한 것처럼 다소 비현실적이고 마비 상태였다가 벅차오르면서 멎은 듯했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뮤지컬을 관객석에서 만난 시간들과 또 직접 뮤지컬을 고민하며 습작했던 숱한 시간들은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파도치는 바다나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없듯이, 내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뮤지컬을 관람하는 시간도 넘버를 직접 써보는 시간도 모두 내겐 소중하다. 뮤지컬과 사랑에 빠진 덕에 나는 모 기획사에서 작사가로까지 첫 데뷔를 할 수 있었다.
뮤지컬 넘버도 아니고 공동작사이긴 하지만, 내 가사를 누군가 열창으로 불러주고, 원고료와는 개념이 또 다른, 저작권료라는 것이 상징적으로나마 매달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매우 적은 액수지만)은 내 인생의 또 다른 희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나는 뮤지컬을 비롯한 여러 문화장르의 정보 소통과 향유를 위해 문화예술채널 '컬처블룸'을 구축했다. 컬처블룸에서는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등 여러 장르의 정보와 리뷰, 문화 이벤트를 만날 수 있다. 문화 커뮤니티 채널로 문화소통과 문화를 통한 힐링도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뮤지컬과 문화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이 플랫폼을 성장시켰기에, 네이버 문화예술분야에서 독보적인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모든 문화 장르가 그렇듯이 뮤지컬에서도 세상을 배울 수 있다. 가보지 못한 여러 세상과 다양한 인물 군상을 통해 내 세계와 시야가 확대된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공연의 한 장면



빌리 엘리어트

잭더리퍼

렌트

맨오브라만차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속에서 삶과 사랑을 노래하고('렌트'), '이룰 수 없는 꿈일지라도 저 별을 향해' 나아가고('맨 오브 라만차'), '중력을 거슬러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고'('위키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평온하다.('라이온 킹')'

뮤지컬이 있어, 그 소우주 안에서 나는 자유롭고 충만하다. 출렁이는 파도가 내게 밀려오고 밀려가고, 그 물결 속에서 별들이 반짝임에 반짝임을 더하듯이. 그러기에 나는 이 소우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못 말리는 열정과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느끼게 만들어줬으므로. 나는 오늘도 뮤지컬을 본다. 그리고, 뮤지컬 넘버를 쓴다.

테마인사이트
(클래식 마니아)

음악과 나

글 **정운재**

부산 태생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였다. 기업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으며 조직문화와 리더십 전문가이자 우리나라에 몇 명 되지 않는 법정언행(法廷言行) 컨설턴트 중 한 명이다. 또한, 라이프 코치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1987년, 따뜻한 내 고향 부산을 떠나 도착한 서울은 너무도 추웠다. 그것은 날씨와 기온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나는 난생 처음 고향을 떠나 대처(大處)로 나온 촌놈이었고, 갑자기 절해고도(絶海孤島)에 뚝 던져진 듯한 뼛속 깊은 고립감이 외피의 체온을 더 떨어뜨렸다. 봄이 되어 최루탄 냄새와 함께 등교한 학교에서도 그 추운 느낌은 여전하였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동맹휴업을 한 학교의 교정에서 간밤에 경찰에 연행된 친구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날들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 나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시간이 계속 이어졌다. 어쩌면 따뜻한 봄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가뜩이나 익숙치 않은 서울살이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유난히도 더웠던 그해 여름이었나 보다. 그때부터 음악을 집중적으로 듣기 시작했다. 아마도 광적으로 음악 듣기에 매달렸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할 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듣던 것이 나중에는 내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가난한 고학생 처지에 오디오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처지였고, 고향에서부터 가지고 온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부모님께서 대학 입학 선물로 사 주신 '마이마이' 휴대용 녹음기가 내 음악 살림살이의 전부였다. 그것만이라도 충분했다. 아니, 차고 넘쳤다.

수중에 돈이 없는 날이 있는 날보다 많았던 곤궁한 처지였지만, 음악감상만큼은 호사를 누렸던 시절이었다. 틈만 나면 학생회관 안에 있던 음악감상실에서 다양한 서양 고전음악을 들었고, 매 학기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음악대학 졸업 연주회는 빠지지 않고 갔었다. 그리고, 무료 공연이라면 열일을 제치고 가서 봤다. 그런 열정 덕분에 좋은 공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어쩌다 수중에 돈이 조금 들어오게 되면 음악 테이프를 사는 호사도 누렸다. 대학생으로 처음 샀던 음악 테이프는 율리우스 베르거(Julius Berger)가 연주한 막스 브루흐(Max Bruch)의 첼로 명곡 'Kol Nidrei(신의 날)'였다. 그 곡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강렬한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수백 볼트의 전류에 감전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제목 그대로 나는 '신의 날'을 살았다. 두 번째로 샀던 테이프는 아마도 알프레드 브렌델(Alfred Brendel)이 연주한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의 '피아노 소나타 모음집'이었을 것이다. 우리한테 친숙한 '월광 (14번)', '비창 (8번)', '열정 (23번)'과 같은 피아노 소나타들이 담겨진 앨범이었다. 베토벤의 소나타들이 어찌나 좋던지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었다. 그 이후 30여 년간 다양한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들을

막스 브루흐의 곡을 연주한
율리우스 베르거의 앨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모음집'을 연주한
알프레드 브렌델의 앨범

나는 항상 알프레드 브렌델의 연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는 여전히 내 마음 속의 최고의 연주자이다. 그렇게 첫정이 무서운 법이다.

친구가 학교 앞 조그만 음반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내 음악생활은 급격히 호사스러워졌다. 그 친구는 노동의 대가로 급여 대신 음악 CD를 받았는데, 매주 급여날이 되면 우리는 후배의 자취방에 모여서 그 CD들을 모두 다 들었다. 신경림 시인이 어느 책에서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고 썼는데, 그때 우리들이 딱 그러했다. 휴대용 CD플레이어와 손바닥만한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서 뭐 그리 흥에 겨웠는지 밤을 새기 일쑤였다. 그때 우리의 신은 바흐(Johann Sebastian Bach),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과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였다. 클라이버(Carlos Kleiber, 지휘자)와 리히터(Sviatoslav Richter, 피아니스트), 분덜리히(Fritz Wunderlich, 테너) 등과 같은 연주자들은 그 신전의 사제들이었고, 후배의 자취방은 우리의 사원이었다. 비록 두 평 남짓한 누추한 공간에서 변변한 제기(祭器)도 못 갖춘 제사였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음악의 신들은 매번 축복의 기름을 우리의 머리 위로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그때 우리가 느낀 기쁨과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사람의 기쁨을 표현하는 '쾌(快), 락(樂), 환(歡), 희(喜), 열(悅)'의 순으로 그 깊이가 깊어지는데, 우리의 기쁨은 가장 깊숙한 진정한 '열(悅)'의 단계였다. 가난했지만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때 우리에게 그런 지복(至福)의 경험을 안겨준 곡들은 'G선상의 아리아'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Air'와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칸타타 147번)', 베토벤 '교향곡 7번의 2악장',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과 '피아노 소나타 21번의 2악장',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의 1악장' 등이었다. 우리는 이런 곡들을 들을 때마다 늘 습관적으로 "이런 곡은 사람이 만든 게 아냐, 하느님의 작품이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고, 나는 여전히 하느님께서 작곡가들을 도구로 써서 그 음악들을 만드셨다고 믿는다. 나 같이 종교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존재를 믿게 만들고, 절대적인 그 분과의 일체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보면 명곡의 위력과 효용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명곡들은 30년을 넘게 수천 번을 들어도 정말 좋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음악들이 삶의 굽이굽이마다 힘들고 지친 내 몸뚱아리를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주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삶의 바탕화면
일상의 새로고침

예술은
쉼을 만들고,
쉼은
예술을 만듭니다.

/

Art of Living
Art of Healing

Artists

20 예술인 레터
22 인터뷰
30 스토리_청년예술인
36 예술인의 點心
40 예술인의 집
45 예술인 앞과 뒤

글 최영미(시인/ 이미출판사 대표)

계약의 기술, 혹은 예술

"1층에서 10층으로 올라가려고
변변찮은 지팡이에 의지해,
붕괴 직전의 예민한 신경을 끌고
시장에 나가 장사꾼들과 흥정한다"

몇 년 전에 내가 쓴 「계약」이라는 제목의 시인데, 지금 다시 보니 '장사꾼'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 이 시를 쓸 때, 나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출판사 대표가 될 줄은 몰랐다. 사업자인 나는 요즘 다른 사업자들과 흥정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예술가도 사업자라고 지금 나는 생각한다. 과거에 나는 자신이 개인사업자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계약에 서툴렀다. 딱딱한 계약서 읽기를 싫어했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을 때의 긴장을 싫어했다. 언어에 활자에 민감한 직업이라 출판계약서나 전월세계약서를 내 딴엔 꼼꼼히 읽기는 했지만, 지나고 보면 사소한 문구에 신경 쓰느라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했다.

성공한 사람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에게서도 우리는 무언가 배울 게 있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저지른 황당한 실수들을 여러분은 피하시기를 빌며 경험담을 조금 늘어놓겠다.
1994년에 첫 시집을 출간할 때, 나는 C출판사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당시엔 그런 관행이 아예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신인이었던 나는 C출판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두 번째 시집 이후에 내가 출간한 책들은 계약서를 썼다. 내 글이 해외에서 번역되거나 노래나 영화로 만들어질 경우에 이익의 분배 비율에 집착해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했던, 나는 바보였다. 6:4를 7:3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 내 의지를 관철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출판사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담당자를 피곤하게 해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는, 내게 불리한 결과를 낳았던 것 같다.

나의 충고

01 계약서를 쓰되 계약서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출판사 대표나 편집자가) 내 책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실력보다 인간관계가 성공을 좌우한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내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면, 책은 내주더라도 그 책이 잘 될 리가 없다.

02 계약서는 계약 당일에 가서 읽지 말고, 미리 이메일로 초안을 보내 달라고 하라. 집에서 혼자 천천히 검토하며 금액은 물론 지급 시기, 계약 기간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계약 당일 옷차림은 너무 분방하지 않게 약간 격식을 차려입는 게 좋다. 예술가가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신경 쓰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옷차림이 제멋대로이면 행동도 제멋대로인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다.

03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계약 기간은 짧을수록 예술가에게 유리하다. 상대방과 뜻이 맞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길어서, 5년 10년 마냥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속이 터질 일인가. 출판 계약의 경우, 초판 5년에 이후 5년마다 (쌍방의 해지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하는 게 업계의 상식인데, 내 생각엔 너무 긴 것 같다. 3년으로 하되 그 뒤는 1년마다 해지가능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보기 싫은 표지를 어떻게 5년을 참나.

04 큰돈이 걸린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계약서를 생략하고 이메일로 대신해도 된다. 일을 할 때마다 무조건 계약서를 쓰자고 덤비지 마라. 계약서보다 이메일이 열람도 쉽고 관리도 편리하다.

05 계약서들을 종류별로 수납해 기억하기 쉬운 곳에, 생각나면 꺼내보기 쉬운 곳에 두시길.

06 A라는 거래처와 관계가 좋다고 A만 믿고 따르지 말고, 거래선을 다양하게, 적어도 두 곳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지금 해가 쨍쨍하지만 언제 천둥번개가 칠지 모르니, 전속계약이나 너하고만 작업한다는 내용의 배타적인 계약은 하지 마시길.

07 내가 먼저 아쉬워 계약할 때보다, 그들이 내게 먼저 제안할 때 내 몸값을 더 높일 수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떤 제안을 한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08 얼마를 줄지를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작품을 의뢰하거나 강의를 부탁하면 정중히 거절하라. 강연을 요청하며 강연료를 말하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다. 돈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마라. 언젠가 미지급 원고료를 받으려 신문사에 전화했는데 "시인에게서 이런 (돈 달라는) 전화 받고 싶지 않다"는 기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시인이 시시하게 돈 이야기하지 않게 당신들이 미리미리 챙겨줘야지!

09 거절할 때는 가능한 부드럽게, 상처받지 않게 거절해야 뒤탈이 없다.

10 배가 고파야 예술을 한다는 말은 믿지 마라.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이 안 나서, 창의력도 감퇴한다.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하며 예술가로 살아가려면, 돈이 있든가 후원자가 있어야 한다. 월세를 걱정하며 어떻게 긴 호흡의 장편소설을 쓸 것인가. 계약의 기술 혹은 계약의 예술에 정통해야, 예술가로 대접받는다.

최영미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창작과비평』 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다시 오지 않는 것들』, 산문집 『시대의 우울 최영미의 유럽일기』, 『길을 잃어야 진짜 여행이다』 등 다수가 있다. 시집 『돼지들에게』로 이수문학상을 수상했다.

인터뷰

만드는 사람이 더 행복한 영화판을 꿈꿉니다

표준계약서와 영화 제작사
BA엔터테인먼트 김원훈 제작실장

글 변진섭 / 사진 최지현

2014년부터 도입된 영화계 내 '표준계약서'가 새삼스레 주목받고 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이 표준계약서를 준수했다는 사실이 미담처럼 퍼졌기 때문이다. 일정 시간 근로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당연한 일이 화제가 될 만큼 영화 제작 환경은 높은 근로 강도와 열악한 처우로 악명 높았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표준계약서로 계약한 경험이 있는 영화 스태프는 열 명 중 일곱 명. 표준계약서는 영화인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표준계약서 도입 후 영화 제작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롱 리브 더 킹〉, 〈범죄도시〉 스태프들과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재단의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제작사 BA엔터테인먼트의 김원훈 제작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14년 표준계약서 도입 전후로 제작 현장 분위기가 크게 다를 것 같습니다. 영화 일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어땠나요?

…

2004년에 〈말아톤〉, 〈슈퍼스타 감사용〉 등 보조 출연 아르바이트로 영화계에 입문했어요. 그때부터 제작에 꿈을 가졌고, 지인 소개로 〈미나문방구〉 제작팀 막내로 들어간 게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십여 년 전 제가 보조출연 일을 할 때는, 스태프 대부분이 두세 달 일하고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임금체계였죠. 정말 '열정페이'였어요. 36시간 연속 근무를 하거나 매일 밤을 새우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아니었어요(웃음). 그러다 보니 많은 사고가 생겼죠. 졸음운전이나 과로 등으로 생긴 사고가 일 년에도 몇 건씩 있었으니까요.

불과 3~4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그때가 아니라, 불과 3~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웃음). 당시엔 '돈도 못 버는데 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판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막상 결과물을 보면 그 쾌감이 정말 커요. 저희끼리는 이 일을 '마약'이라고 해요. 끊을 수가 없다고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다가도 새로운 일이 생기면 힘든 건 잊고 또 신나서 가고. 근무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영화는 사람에게 여러 감정을 일으키는 콘텐츠잖아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감정 없이 일하고 있다는 게 줄곧 마음에 걸렸어요. 만드는 사람들부터 좀 행복해야죠. 이전에는 과로사도 많이 있고 열정페이 문제도 컸는데, 이제는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인식 자체가 바뀐 거죠.

표준계약서가 도입 이후 빠르게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

표준계약서 체결이 정부의 권고사항이어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또한 영화계 내부적으로도 근로환경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해보자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빠르게 시작해서 정착시킨 게 옳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영화 스태프들은 수용이 빨랐어요. 표준계약서에는 일할 시간과 시급이 정해져 있고, 약속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항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대신에 '이게 정말 될까?'하는 의심들은 있었죠. 지금까지 몸에 익은 노동 강도로 봤을 때 계약서의 내용들은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었으니까(웃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서 좋아진 건 노동 강도가 완화됐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거듭 촬영했는데, 지금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거든요. 촬영 중에도 종종 근무시간을 체크해요. 그리고 한정된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요. 현장이 더 재밌어졌어요. 조금씩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올랐죠. 물가 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2014~2015년 상업영화 1편 기준 순제작비 평균이 30억~35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약 50억 원이거든요. 5년 사이에 0.5배가 늘어났어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거고, 이제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이제 표준계약서는 당연한 일이고, 요즘 화두는 *주 52시간 근로예요.

주 52시간 근로의 어떤 점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가요.

…

다른 업종을 보면 근로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시간 감축으로 스태프들의 임금이 전보다 줄어든다면 주 52시간 근로 의미가 퇴색되어버리잖아요. 지금은 52시간이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앞으로 근로시간은 더 단축될 수 있는데, 그게 급여가 작아진다는 말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이 있죠.

* 김원훈 제작실장이 보조출연 일을 하던 2004년 9월~2005년 8월 최저시급은 2,840원, 8시간 근무 기준 일급은 2만 2,720원이었다. 근로시간을 2019년 현재 기준인 주 52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달 최저임금은 58만 7,290원이다.
* 그동안 영화계(영화 및 영상업)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영화 및 영상업종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됐다. 현재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영화계의 많은 사람이 근무환경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즈음에 표준계약서 얘기가 맞물려 나왔다.

2013년에 설립된 BA엔터테인먼트는 〈범죄도시〉, 〈기억의 밤〉, 〈악인전〉 등 수많은 히트작을 제작했다.

영화계에 더 필요한 제도나 지원해줬으면 하면 것들이 있을까요?

…

먼저 52시간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영화계는 매년 새롭게 과도기를 겪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상황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표준계약서, 최저임금 이슈 등이 있었고 이제는 이 근로 시스템을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영화 환경과 호환할 것인가 고민이 많아요. 기준이 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들이 가지 치듯이 뻗어 나갈 것 같은데 아직은 다음을 말하기엔 조금 섣부른 시기인 것 같아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사회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작사나 영화인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뿐만 아니라 스태프들한테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죠. 대신 '이걸 왜 주는 걸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돈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불쌍해서 주나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웃음). 자격을 갖추기만 한다면 스태프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작사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인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 예술인들이 재단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저는 지인을 통해 예술인패스를 알게 돼서 발급받았고, 온라인 뉴스레터도 보고 있지만,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영화 스태프들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제작사에서 신청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준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어렴풋이 예술인을 돕는 단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이름이나 어떤 지원 정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

예술인들은 정말 먼 미래를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화 제작에 꿈을 가진 분들은 모두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힘들어도 언젠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천만 영화를 만들어내겠지' 생각하면서 나아가겠죠. 오히려 영화현장의 스태프들은 영화를 할 기회가 더 열려있고 조금씩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사실 배우분들이 오히려 저희보단 기회의 문이 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로 함께 일했던 진선규 배우가 인터뷰 중에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15~16년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또 연극판에서 유명한 분임에도 그동안 내 가족들이 먹고 싶은 걸 원 없이 사줄 수 없던 게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런데 얼마 전 '가족들이 먹고 싶다는 걸 마음껏 사줄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제작사만 해도 영화 한 편 들어갈 때마다 프로필이 천여 통씩 와요. 정작 오디션으로 뽑히는 사람은 20명 남짓인데요. 배우들이 기회 잡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연기를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겸하는 분들도 많고요. 〈범죄도시〉 계약 당시 김성규 배우(범죄도시 양태 역)가 계약서 쓰기로 한 날 밤늦게 오셨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늦으셨냐고 여쭤보니까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배우분들도 재단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태프들과 저는 일단 주 52시간 근로부터 해결하고요(웃음).

앞으로 제작해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

…

처음 영화 시작할 때부터 음악영화가 하고 싶었어요.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과 〈라라랜드〉를 좋아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뮤지컬 영화…. 냉정하게 보면 망할 것 같지만 또 모르죠(웃음). 한국형 좀비영화 〈부산행〉처럼 누군가 스타트를 끊으면 뮤지컬 영화가 쏟아질 지도요. 영화로 다룰 수 있는 소재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영화인들은 그 무궁무진함에 기대 꿈을 꾸면서 가는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예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

건강하세요(웃음).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넓은 의미로요.

김원훈 제작실장 필모그래피

2018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제작실장, 2017 〈범죄도시〉 제작실장, 2016 〈부산행〉 제작부장, 2016 〈공조〉 제작부장, 2015 〈악의 연대기〉 제작부장, 2014 〈해무〉 제작팀, 2013 〈피끓는 청춘〉 제작팀, 2013 〈미나문방구〉 제작팀.

인터뷰

재미의 이어달리기, 공장노동자에서 청년예술인으로

『회색 인간』의 저자 김동식 작가

재작년 말에 출간된 『김동식 소설집』 중 하나인 『회색 인간』은 10쇄를 훌쩍 넘겨 문학계에도 큰 화제가 됐다. 김동식 작가는 이제야 본인을 작가로 소개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서울 주물공장에서 단추 같은 액세서리를 만드는 노동자였다. 22살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공장으로 출퇴근하길 10년. 그는 단추와 함께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만들어진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서 올라왔다. 그의 소설은 김민섭 작가의 제안으로 출판되었다. "여전히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피드백이 있어 성장할 수 있었다"는 말을 잊지 않는 그를 만나보자.

글 변정부 / 사진 최지원

"잘 모르겠는데…" 인터뷰를 시작하며 김동식 작가에게 청년예술인에 관해 물었다.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러곤 자신을 청년예술인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의 소설집은 불황이라고 하는 출판업계에 대박을 터트렸는데도, 정작 그는 겸연쩍다. 그는 마케팅의 힘이 크다고, 세일즈 포인트가 있지 않냐고 겸손하게 덧붙였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운이 좋은 청년예술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과연 100%의 운 때문이었을까? 분명 35세의 김동식 작가는 청년예술인 자격을 갖고 있다. 500편이 넘는 단편을 우직하게 쓰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지 않는가.

김동식 작가의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미완성된 텍스트 파일로 빈틈이 없다. 특별한 제목도 없는 이 글들은 그가 언제든 꺼내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2017년 12월에 책이 나온 후로 인터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

지금은 주로 학교에서 작가와의 만남 같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많이 불러주시네요. 제 책을 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직도 신기해요.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도 제 서평을 찾아보는데, 직접 만나서 듣는 후기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강의에서 현장의 후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강의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부분의 선생님은 이미 제 책으로 수업이나 토론을 한 후에 불러주세요. 그래서 매번 기분 좋게 갈 수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작가가 됐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쓰다 작가가 된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또, 질의응답으로 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글을 쓰기 전, 노동자로서의 생활이 이슈가 됐어요.

…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19살에 대구로 올라와 PC방 아르바이트를 3년 정도 했습니다. 시급 1,900원 받고, 휴일 없이 11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60만 원을 벌었어요. 당시에는 누구도 시급을 적게 받는다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단골손님이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때마침 외삼촌의 소개로 성수동 주물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월드컵 직전이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받은 월급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두 배가 넘는 돈을 받는 신세계가 펼쳐진 거죠. 이 공장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결근도, 지각도 없이 10년을 일했습니다.

뼈를 묻겠다고 생각한 공장을 나와 글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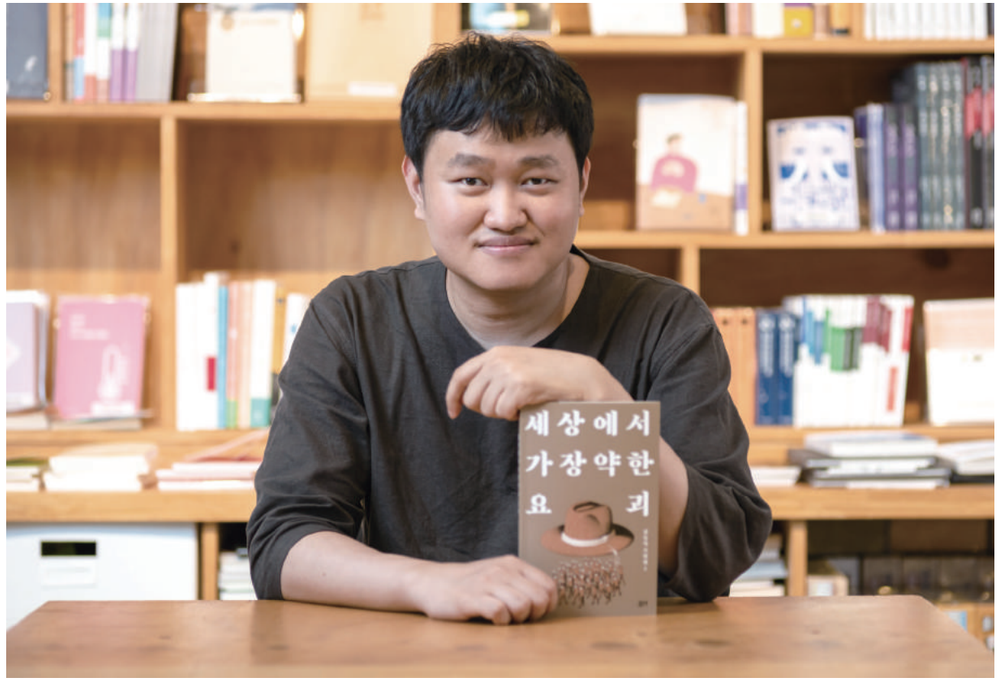
딱 1년만 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지치더라고요. 제가 30대가 됐을 때, 지난 10년을 하루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 출근하고, 다시 퇴근하는. 20대가 삭제된 것 같더라고요. 공장 생활에 지칠 때쯤, 글쓰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오늘의 유머라는 커뮤니티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쓸 생각으로 그만둔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여행도 다니고 기억에 남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공장은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웃음) 근데 1년 후, 책이 출간돼서 글쓰기에 몰입하기로 했어요.

2016년 5월부터 3일에 한 편씩, 500편이 넘는 글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

단순한 이유였어요. 커뮤니티는 3일이 지나면 잊히거든요. 댓글로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한 편씩 글을 올린다는 저만의 다짐이 생긴 거죠.

김동식 작가에게 가장 큰 지출을 묻자 130만 원의 월급을 모아 반지하 전세로 이사했던 때를 말한다. 서울로 올라와 옥탑방에서 4년을 살았고, 반지하에 전세로 이사와 지금까지 8년을 살고 있다. 그는 그 집에서 글도 쓰고 데뷔도 했지만, 이제 창문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고 덧붙인다.



장소 협조 책방열음 (서울 광진구 광장로 59-1, 070-8760-1135)

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에서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는 작가들이 많은데,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

할 일이 없다 보니 인터넷을 많이 합니다. 커뮤니티는 물론 뉴스, 실시간 검색어를 눌러보다 번쩍 떠오르면 쓰기 시작해요. 인터넷에서 텍스트를 소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웹서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재밌는 글을 찾으러 커뮤니티의 유머나 공포게시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최근에는 이동하면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한 번씩 의식하려고 합니다. 버릇이 든 것 같아요. 흥미 있는 것을 찾으려는. 공장 다닐 때는 글을 쓸 생각이 없어서 뭔가를 찾진 않았어요. 대신 벽보고 혼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흔히들 망상이라고 하죠.(웃음) 초능력이 생기면 뭐할까, 어디에 갇혀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같은.

특별히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운 건 아니지만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고요.

…

인터넷 외에도 만화, 게임, 시트콤 등을 챙겨보며 기발한 부분에 늘 감탄했어요. 다양한 콘텐츠를 접했으니 제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무조건 모를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최대한 결말, 상황 등은 저조차도 처음 보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따로 찾진 않고, 모르는 게 나올 때까지 머릿속에서 생각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름 끼치는 반전이나 뒤통수 맞는 느낌의 결말이거든요. 또한, 댓글에서 제가 생각한 반응이 나왔을 때 짜릿함을 느껴요. 소름이 돋을 만큼. 그것 때문에 글을 재밌게 쓸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와 인정받는 것, 둘 중에서 무엇이 더 큰 원동력이었나요?

…

글쓰기는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32살까지 살면서 좋아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막상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에게 댓글과 추천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너무 짜릿했어요. 제가 댓글중독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댓글도 꼼꼼히 챙겨봤고요. 그때의 희열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글을 썼는데, 감사하게도 기회가 오더라고요.

김동식 작가는 스스로 운이 좋았다며 겸손하게 운을 뗐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등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작가가 됐다. 하지만 요즘 작가가 되는 방법은 그뿐만이 아니다. 텍스트를 접하는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김동식 소설집〉을 펴낸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협회 소장은 그를 그동안 글의 가치만으로 작가가 되는 방식의 증거라고 부른다. 글의 가치만으로 주목을 받는. 〈김동식 소설집〉의 출판사 '요다'는 오늘의 유머에서 또 다른 필자 '문화류씨'를 발굴해 책을 냈다.

지금은 주로 어떤 글을 쓰시나요?

…

틈날 때마다 쓰고 있어요. 일정이 바쁘면 이동하는 시간을 활용하는 편이에요.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여러 명의 작품을 책으로 엮은 앤솔로지나 카카오페이지에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앤솔로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작가분들과 교류도 할 수 있어 감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가로서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

초심을 잃은 것 같다는 댓글을 받곤 해요. '예전만큼 재밌진 않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책보다는 신경을 씁니다. 어떤 부분에서 재미가 없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재밌을지 계속 생각 중입니다. 또한 10,000자 정도 되는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정도 텍스트가 있어야 독자들이 더 좋아하시고요. 공장을 다닐 때는, 퇴근할 때까지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주저 없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바로 키보드 앞에 앉으니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두 가지 조언을 들었는데, 하나는 공장에 다시 다니라는 것.(웃음) 다른 하나는 산책입니다. 공장보다는 산책하면서 사색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반전의 연속인 삶에 살고 계신 소감 부탁드려요.

…

작가로서 이렇게 계속 글을 쓸 것이라고는 상상 못 했어요. 꾸준히 해왔고,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며 글을 쓴 게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김동식 작가
『화색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 『13일의 김남우』, 『양심 고백』,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성공한 인생』, 『살인자의 정석』, 『하나의 인간, 인류의 하나』의 저자

각개전투하고 있는 청년예술인들. 마지막으로 김동식 작가에게 그와 같은 청년예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짧게 덧붙였다. "로또 당첨되세요." 김동식 작가다운 대답이었다. 그가 말한 로또는 무슨 로또를 말할까. 금전적인 행운만을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 글 최서윤 작가

이 땅에서

청년예술인으로 산다는 것

일단 덥석 받아들였다. 걱정은 그다음이었다. 이 원고에 대한 얘기다.
글자 한 점 없이 깨끗한 '새 문서'를 노려보며
적지 않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니, 옅은 후회가 뒤늦게 찾아왔다.
의뢰받은 글의 주제가 퍽 어려웠던 탓이다.
편집실에서는 "이 땅에서 청년예술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글을 원했다.
청년예술인 중 하나로서 내 경험과 생각을 쓸 수야 있겠지만,
그것을 다른 예술인들이 공감해줄지가 걱정이었다.
예술가들 각자의 경제적 배경이나 상황,
창작의 동기와 작업 방식이 모두 다를 텐데,
개인적인 견해를 펼쳤다가 괜히 욕이나 들어먹으면 어쩌지?

돌이켜 보자. 도대체 나는 왜 이 글을 쓴다고 했을까?
제시된 원고료가 거절하기 아쉬운 액수였다.
이것에 대해 툭 까놓고 말하며
글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것만은 분명 대부분의 예술가가 공감할 것이다.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에서 용역 의뢰는 (터무니없는 조건이 아닌 이상)
매번 소중하다는 사실 말이다.

당사자의 언어로 '청년예술인'을 정의해야 할 때

글 · 최서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프리랜서 비율은 전업 예술인 76%, 겸업 예술인 68%로 드러났다. 예술인 대다수가 프리랜서인 셈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일주일의 5일, 9 to 6 출근하는 직장에 속해있지 않다.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삶의 구조다. 물론 대개 한국인의 삶은 다 불안정하지만, 프리랜서는 정도가 더 심하다. 젠가 게임을 해봤다면, 한 조각만 꺼냈을 뿐인데 탑이 와르르 무너진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 전에 이미 아슬아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삶이 딱 그렇다. 파편적인 일의 의뢰가 지속해서 받쳐줘야 지탱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이런 삶의 구조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창작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크다. 직장에 속한 노동자가 되면 장기적인 삶의 계획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직장 다니면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예술인도 드물지만 있겠지. 문제는 내가 여유 시간이 넉넉하게 확보돼야만 하는 예술인이라는 거다. 멈춰 생각할 수 있는, 일상의 루틴에 잠식되지 않는 시간의 확보가 내겐 중요하다. 그러니 적게 벌고 적게 쓰며 시간을 확보할 수밖에.

역지사지에서 출발하는 창작의 영역

불안정성을 끌어안더라도 예술인의 삶을 이어가고 싶은 이유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이다. 기성용 선수를 좋아한다. 아주 오래전 그가 한 말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나는 종종 답답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람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할까? 누가 자기한테 저러면 자기도 기분 더러울 거 아냐? 역지사지의 미덕을 좀 발휘할 수 없어?

사실 알고 있다. 역지사지를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 각자 경험에 따라 감정이입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고, 이입의 강도 역시 사안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기성용에게 감정 이입했지만, 누군가는 '니들'에 이입할 것임을 안다. 자신의 경험 밖에 있는, 내가 모르는 타인의 입장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인식은 창작 활동으로 공감의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욕망을 부추겼다. 답답하니까 뭐라도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예술적 충동으로 다가온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대해, 그 정서적 맥락과 주장에 대해 공감을 얻는 작업, 그로써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나아지는데 기여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다.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

예를 들어 내가 기획하고 제작한 보드게임 〈수저게임〉은 '흙수저'의 입장에서 만든 것이다. 2015년, 한국 사회에 수저계급론이 대두됐다. 자신의 수저를 말하며 한탄하는 이들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계급적 격차가 커지는 현실을 자조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해 자조하는 무력한 개인들만으로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없다. 나는 흙수저들이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토론하고, 더 나아가 정치력을 갖추고 집단적 협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는 일종의 학습교구로써 〈수저게임〉을 만들고 여러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는 일로 이어졌다. 작년에 연출한 다큐멘터리 〈망치〉 역시 같은 결로 볼 수 있겠다. 나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관련 사회적 비극이 왜 이리도 자주 빚어지는지, 관련 사건을 접할 때마다 답답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의 권리가 그곳에서 실제 활동하는 사람의 권리보다 앞서는 게 정말로 당연한 일인가? 한국 사회가 재산권을 지나치게 떠받드는 것은 아닌가? 〈망치〉를 보고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랐다. 순진할지 모르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의 응집된 힘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더 나은 체계와 문화로 나아가게 한다고 여전히 믿는다.

일과 예술, 아슬아슬한 균형 사이의 청년예술인

'답답함'과 같은 정서적 자극은 창작을 추동한다. 그리고 한국은 뜨거운 감정의 도가니와도 같다. 치열한 경쟁, 서열 나누기, 약자에 대한 착취 등이 일으키는 열패감, 모멸감, 분노 등으로 연일 뜨겁고 시끄럽다. 그만큼 창작의 소재가 널려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만 하다면, 어쩌면 한국은 예술하기 좋은 나라일지도. 그게 어려운 곳이라 온갖 부정적인 자극과 감정으로 들끓는 도가니가 되었겠지만.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이 땅에서 청년예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균형의 수호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수익을 위한 일과 창작 활동의 균형을 이루며 무너지지 않도록 조각을 쌓아나가는 것이다, 아슬아슬 휘청일지라도. 나는 언제까지 이 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최서윤 작가 · 단편영화 감독
이제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보드게임 〈수저게임〉을 만들었다. 책 『불만의 품격』, 『미운 청년 새끼』를 썼고, 단편영화 〈영화학개론〉, 〈망치〉를 연출했다.

청년예술인 혹은 청년예술가는 누구인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운동 및 청년 정책이 등장했고,
이 '청년'기호는 기존의 정책 범주들을 청년 노동자, 청년 실업자로,
심지어는 청년 그 자체를 새로이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청년' 정책들의 변주 혹은 변종으로서의
청년예술가는 누구인가. 이들은 왜 신진예술가도 아니고,
신인예술가도 아닌 청년예술가로 불려야 하는가.
또는 청년예술가라는 호칭이 구성해 낼 그 반대편의 범주로서
기성예술가는 어떤 식으로 의미화되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누가 이 청년예술가라는 범주를 의미화할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청년예술인을 연령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크게 고민이 필요가 없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혹은
청년실업에 관한 기존의 법령에 따라 만 39세 혹은 35세 이하의
연령대에 속한 예술가로 청년예술인을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연령 기반에 따른 예술가 군 내의 한 집단이
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차원에서 특별히 더 조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이 연령대의 예술인들은 얼마나 '다른' 위험에 처해있을까.
예술계 내의 불안정성은 정말 연령에 따라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을까.
청년예술인들의 불안정성은 다른 연령대의 예술인들이 지닌
불안정성과 비교해 그 양적인 규모가 크거나,
질적인 양상이 완전히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원고를 청탁받았을 때 요청받은 내용은 '청년예술인이 지닌
특정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였다면, 나는 거꾸로 묻고 싶다.
청년예술인들이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을까.

청년예술인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왜 청년예술인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부재하지만 2010년대 이후 급증한 소위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홍수인 상황에서 만 39세 이상에 속하는 예술인들의 볼멘소리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세대의 구성원들 또한 힘들다"라는 세대 간의 취약함 경쟁의 구도는 소모적이다.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청년예술인으로 호명되는 예술인 내에서도 '청년'이라는 호칭이 일군의 미성숙함을 구성하며 '기성에 비해 능력은 부족하지만 열정은 있는 예술인'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이들 역시 상당하다. 이제 '청년예술인'의 '청년'이란 어떤 존재인가 혹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보다 본격적이고 정치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청년예술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선언한다

여기서 필자는 이를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을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의 문화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청년 시민들이 모여, 문화-일자리-평등-교통환경 등의 분과를 구성하고 직접적으로 정책 제안을 실시하는 거버넌스 플랫폼이다. 참여자의 자격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의 인적 구성은 매우 다양하지만, 문화분과의 경우 '예술인'들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들이 털어놓는 문제점과 원하는 개선 방향은 그간 예술계에서 논의되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원사업의 결과 공유, 사업비증빙완화, 문화기획자 처우개선, 예술인 증명절차 개선, 프로젝트 지원사업 자격 기준 완화 등은 예술계 내부에서 생경한 문제들이 아니다.
문제는 이 청년예술인들은 왜 문화재단이 아닌, 문체부가 아닌, 청년이라는 연령 기반의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정책기관에 개입하고 있는 것일까에 관한 것이다. 현재 문화재단 및 각급의 문화부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참여자에게 제한적 역할을 부여하는 정부주도형인 경우가 많으며, 예술계에서 이미 성원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대상인 경우가 많기에 청년에 속하는 예술가 군의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난하고 열악한 예술인와 상상력과 창조력을 지닌 대상으로서 청년은 끊임없이 호명되지만, 정책이 결정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에는 배제된다. 청년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에 개입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청년예술인'란 무엇인가를 선언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채태준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석사과정에 있으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문화분과,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청년플랫폼 'Y'에서 활동하고 있다.

예술인의
點心

나의 점심은 休. . . . . 쉼

/

김지수 미술감독

"세상 참 좋아졌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온다는 건, 한때 영화예술계 노동을 미화한 '열정 페이'에 대한 남다른 소회일지 모르겠다. 그 세월을 몸소 겪고 견디고 지켜온 이에게는 더더욱…. 영화나 TV 영상을 통해 보여지는 모든 것이 미술감독의 영역이라는데, 그러자면 김지수 미술감독에게 슈퍼울트라메가톤급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을 달리는 내게 점심은 휴식입니다."

열정 페이스의 원천, 휴식이라는 이름의 점심

청춘의 열정으로 시작해 어느덧 청춘들의 선배로 팀을 이끌어 가고 있는 김지수 미술감독. 오랫동안 미술 작업을 하고 싶다는 '열정의 거인'이라 해도 피해갈 수 없고 해결해야 하는 것, 다름 아닌 마음의 점을 찍어 하루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점심(點心)이다. 그녀의 말대로 건강해야 오래 할 수 있고, 마음의 점을 찍어야 다음 영화나 드라마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술가의 한 끼, 점심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김지수 감독에게 '감독님한테 점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다.

"작품에 들어가면 점심 먹는 시간에서야 겨우 의자에 앉게 되는 날들이 많아요. 그 밥이 현장의 밥차이든 작은 커피전문점의 커피 한 잔이든, 시간을 달리는 일을 하는 내게 점심이란 곧 휴식입니다. 휴식 같은 점심이 있어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도 얻으니까요."

천 리를 달리는 말도 여물을 먹고 쉬어야 천리마가 될 수 있듯, 허기진 배를 채우고 한숨 돌려 새로운 예술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원천. 김지수 미술감독만의 슈퍼울트라메가톤급 에너지는 더 나아가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쉬는, 휴식이라는 이름의 점심이었다.

영화 미술감독, 드라마로 영역을 넓히다

우리나라 영화계의 내로라하는 작품에는 '김지수'라는 미술감독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한때 가수 김수철의 닉네임이기도 했던 '작은 거인'을 빌려오고 싶을 만큼 작지만 작지 않은 인상을 김지수 미술감독에게서 받았다. 선조들이 허투루 속담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위대한 혜안에 무릎 꿇고 싶을 정도로,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 에너지가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 노동까지 보태지는 영화 현장에서 걸크러쉬 같은 캐릭터를 연상했건만 온화하고 차분한 미소와 목소리에 두 아이의 엄마라고는 믿기지 않은 동안(童顔)의 소유자가 20년 넘게 해오던 영화에서 드라마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중이었다.

보여지는 모든 것에 날과 촉을 세워야 하는 고단한 작업의 나날들, 김지수 미술감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내 이름 석 자, 한 편의 영화 제작에 참여한 무수한 이름들 중에 묻혀 있지만 나만이 알 수 있고,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그 명징한 표시!"

아직도 첫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잊을 수 없다는 김지수 미술감독. 이름 석 자가 검은 프레임 위에 올라가는 것에 홀려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같다고 한다. 영상으로 보이는 캐릭터, 분장, 의상, 공간 등을 구현해내기 위해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 미술감독은 배우가 연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먼저 캐릭터에 빠진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없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미술감독의 일이자 몫이라고 덧붙인다.

Artists
Welfare
Magazine
예술:
Volume. 31
Summer
2019

열정의 한 끼, 새로운 일의 동력이 되다

"이 드라마가 지금 한창 촬영 중이고 9월 방영을 앞두고 있지만 저희 미술팀은 3월부터 올인했어요. 하나의 마트를 통째로 만드는 세트장 작업이며 배우들 의상, 소품, 공간 연출 등 시각적인 모든 것을 구현해내고 책임지고 있는 터라, 현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촬영 중에는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김지수 미술감독만의 작업 철칙 중 하나라고. 언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른다는 변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도 영화도 다 먹고서 하는 일, 점심을 비롯해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었다.

"영화 현장이라면 점심은 보통 밥차를 통해 해결하는데, 드라마 현장은 다르더라고요. 밥차 형식의 식단으로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식사를 해결해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 빵빵한 내부가 시원해서 좋죠. 물론 연출팀, 조명팀, 미술팀 등 팀별로 식대가 지급되기 때문에 식비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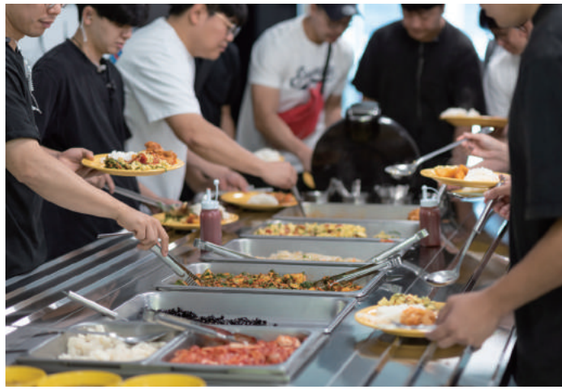
예전에는 많이들 김밥이나 우유, 아니면 커피로 점심을 때우고,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포만감을 채웠지만 그것은 한계를 자초하는 일이었다. 어려운 현실을 지속할 수 없어 영화계를 떠나는 선·후배 동료들을 지켜봐야 했던 김지수 미술감독에게 지금의 달라진 환경은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아직도 열악한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점차 개선되는 걸 직접 보고 느끼다 보니,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선지 그때와는 또 다른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이 다행히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정작 김지수 감독 자신이 만족할만한 작품은 손에 꼽는다고 한다. 그녀가 워커홀릭이 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세계 곳곳을 뒤지고 다니는 이유다. 그러기 위해 한 끼 한 끼 잘 챙겨 먹는 것도 작업의 완성도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리라. 영화에서처럼 드라마에서의 성공도 기원해본다.

김지수 미술감독

1996년 영화 〈올가미〉를 시작으로 〈주홍글씨〉, 〈즐거운 인생〉, 〈늑대소년〉, 〈인간중독〉, 〈국가대표2〉 등을 통해 독특한 감각의 미술감독으로 주목받았다. 2019년 현재 기획·제작 예정인 영화 〈오 마이 갓〉과 9월 예정인 tvN 금요저녁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의 미술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상하지만 이상적인 이상의 이상향

시인이자 건축가,
화가였던 예술인 '이상의 집'

글 · 편집부 / 사진 변상희

사람 사는 동네, 골목 안 집과 집이 마주하며 들락날락 이웃으로 살았을 곳에 암울하고 폐쇄적 느낌의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작가, 이상(본명 김해경, 1910년 9월 23일~1937년 4월 17일)의 집이 있다. 짧은 생애 동안 한국 문학계에 난해하지만 아주 특별한 작품들을 남긴 천재작가의 집은 서울미래유산으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었다. 드르륵, 잘 알고 지내는 이웃집 현관문을 열 듯 그렇게 밀고 들어갔다.

이상다운 공간과 구조로 이상을 느낄 수 있는 집

/

'왜 신은 많은 재능을 주고, 쉽게 거두어 가는 걸까'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천재작가의 거처, 육신을 누이고 창작에 몰두했을 공간은 모던하고 심플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모더니즘 작가 이상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후배 건축가들이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ㄷ'자형 공간이 한눈에 들어온다. 왼쪽 벽면에는 이상의 초상화와 함께 팔만대장경 형태를 본뜬 서고에 작가의 작품들이 아카이브처럼 보관되어 있다. 세로형 아크릴 패널을 꺼내 신문에 게재되었던 '오감도'를 볼 수 있고, 가로형 서랍식 나무 패널을 열면 소설 '날개'를 펼쳐 볼 수 있다. 그리고 맨 아래 책꽂이에는 이상 관련 기록 및 출판물들이 있다. 시 75편, 소설 21편, 수필 19편, 서신 5편, 그림과 삽화 16점 등 총 150여 점에 달하는 이상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서고 건너편 통유리로는 중정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조각가 최수앙 선생이 만든 이상의 흉상이 담벼락에 걸려 있다. 요절한 작가의 흉상은 친구였던 화가 구본웅이 그린 초상화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고 한다. 문인들 이외에 건축가와 조각가의 참여는 이상이 건축과 미술에도 조예와 재능이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이상의 집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자 '날개'의 작가, 이상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독특한 구조의 '이상의 방'이 아닐까. 철통같은 외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칠흑같이 어두운 방이 나온다. 방의 왼쪽 벽에는 작가에 대한 영상이 플레이되고 있지만, 오른쪽으로는 천정을 향해 검은 계단이 놓여있다. 어둠의 계단 위 구멍 하나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 공간으로 흘러들어온 빛을 통해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썼을지 상상하게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계단 끝 빛이 들어오는 구멍 아래에는 또 다른 통로가 있다는 듯 손잡이가 붙어있다. 숨은 공간이 궁금해 문을 열면,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발코니가 회색 벽에 떠있는 듯 달려있다.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라는 작가 이상의 소설 '날개'의 마지막 구절이 떠오르는 연상공간이기도 하다.

문화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이상의 날개를 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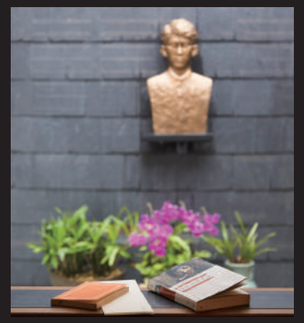
1912년부터 1933년까지 21년을 살았던 지번 '통인동 154번지'의 이상의 집은 큰아버지 김연필의 집이었다. 가난한 이발사였던 아버지 김연창과 달리 총독부 기술 관리였던 큰아버지는 살림은 넉넉했지만, 대를 이를 아들이 없어 작가 이상을 양자로 들였다고 한다. 작가가 살았던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본채와 행랑채, 사랑채까지 딸린 300여 평의 넓은 집에서 이상은 유복했지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다.

길지 않은 생의 대부분을 영위했던 곳인 만큼 이상의 집에 대한 복원과 기대는 대중들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다. 훼손의 위기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작가 이상의 삶처럼 부침의 시간이었다. 그동안 여러 단체의 기증과 노력으로 유지·관리되었던 곳이 2008년 등록문화재 지정이 해지되면서 2009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매입한 뒤 전시회와 강연, 음악회 등 문화 행사가 펼쳐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상의 집. 지난해 4개월에 걸친 보수공사를 마치고서야 지금의 모습으로 재개관하게 되었다.

1931~1932년 사이에 2,000여 편이라는 시를 토해낼 정도로 짧은 삶을 맹렬히 살다간 천재를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가 숨 쉬었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겐 더 없는 혜택이자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본명 김해경이 아닌 필명 이상으로 자신만의 시그니처를 만든 박제가 된 천재, 이상의 집에서는 이상하지만 이상적인 이상만의 독특한 이상향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집이 예술인의 집임을 목도하고 싶다면, 많은 이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공간에 관심과 참여를 보태고 싶다면 직접 찾아가는 즐거운 수고는 어떨까.

Mini-comment_
방정훈(이상의 집 도슨트)

"2009년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 인수하지 않았으면 패스트푸드점이 됐을 수도 있었다고 해요. 여러 단체의 기증과 노력, 시민들의 관심으로 작가 이상의 집이 서촌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된 거 같아요. 주중은 물론 주말이면 방문객들로 이 공간이 꽉 차거든요.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예술인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주요 작품 연대표

1931년 처녀작으로 시 〈이상한 가역반응〉, 〈파편의 경치〉를 〈조선과 건축〉에 발표

1932년 '이상(李箱)'이라는 이름으로 시 〈건축무한육면각체〉를 〈조선과 건축〉에 발표

1934년 시 〈오감도〉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했으나 독자들 항의로 중단

1935년 시 〈정식〉을 〈가톨릭청년〉에 발표, 시 〈지비〉를 조선중앙일보에 발표

1936년 단편소설 〈날개〉를 〈조광〉에 발표, 연작시 〈위독〉을 조선일보에 연재

'이상의 집'을
찾아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7길 18
운영 : 월-일 10:00~18:00
(설·추석 연휴 휴관)
문의 : 02-752-7525

문인 문학관

예술인들이 사랑하는

나의 아름다운 문학관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인들이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들이 숨어있다. 바로 문인의 이름을 딴 문학관이다. 문인의 작품세계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다양한 문학예술 관련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는 문인 문학관들을 소개한다. 문학과 예술의 향기, 일상 가까이에서 오래도록 느껴보자.

예술인에게 영감을 주는 시인, 기형도문학관

시인 기형도(1960.3.13~1989.3.7)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건립된 문학관. 짧은 생을 마친 기형도의 시와 삶을 살펴볼 수 있는 1층 전시실을 비롯해 2층에는 북카페와 도서 공간이, 3층에는 강당과 창작체험실, 그리고 옥탑에는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지역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인문 아카데미와 토크 콘서트 등 문학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문인의 이름을 딴 '기형도 시인학교 2019 9.22~11.03 '가 개강을 앞두고 있다.

· **관람 정보** : 화요일~일요일(매주 월요일 휴관) / 09:00~18:00(3월~10월), 09:00~17:00(11월~2월) / 무료
· **문의 및 안내** : 02-2621-8860 / www.kihyungdo.co.kr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268

자유와 사랑을 노래한 시인, 김수영문학관

불의의 사고로 짧은 생을 마감한 문단의 대표적인 자유 시인 김수영(1921.11.27~1968.6.16)을 기리기 위해 2013년 11월에 개관한 문학관. 1, 2층은 시인 관련 전시실, 3층 도서관, 4층 대강당(각종 세미나, 시낭송회), 5층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인문학 강좌, 초청 강연 등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인의 이름을 내건 '김수영청소년문학상'과 '김수영문학상'을 통해서는 젊은 문학 예술인들이 배출되고 있다.

· **관람 정보** : 화요일~일요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휴관) / 09:00~17:40 / 무료
· **문의 및 안내** : 02-3494-1127~8 / kimsuyoung.dobong.go.kr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32길 80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인, 윤동주문학관

하늘, 바람, 별을 떠올리게 하는 시인 윤동주(1917.12.30-1945.2.16)를 기억하고자 2012년에 건립된 문학관. 내부에는 시인채(제1전시실)를 비롯해 열린 우물(제2전시실), 닫힌 우물(제3전시실) 등의 공간이 있으며 외부에는 쉼터와 시인의 언덕로(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독특한 건물로 2012년에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2014년에는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했다. 2016년 현충시설로 지정되면서 공간의 가치 또한 주목받고 있다.

· **관람 정보** : 화요일~일요일(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휴관) / 10:00~18:00 / 무료
· **문의 및 안내** : 02-2148-4175 / www.jfac.or.kr/site/main/content/yoondj01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19

Artists Welfare Magazine
예술:
Volume. 31
Summer 2019

예술인의 앞과 뒤

페이퍼아트뮤지컬 〈종이아빠〉, 당신의 정체는?

유난히 소품이 많이 등장하는 뮤지컬 〈종이아빠〉.
무수히 쏟아져나오는 공연 작품들 속에서 4년여 동안 대학로에서 롱런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함을 시사한다.
아동들을 위한 뮤지컬이지만 누군가의 특별한 노고가 담긴 〈종이아빠〉의 뒷얘기는 그래서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아낸다.
주요 캐릭터인 '종이아빠'를 비롯해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어낸 디자이너이자 무대감독, 그 아티스트가 궁금하다.

〈종이아빠〉를 만든 아티스트는 박성찬 감독!

지난 2015년, 이지은 작가의 스테디셀러 동화 '종이아빠'가 아주 특별한 장르의 페이퍼아트뮤지컬로 무대에 올려졌다. 〈넌 특별하단다〉의 제작진 '행복자'가 만든 창의력 쑥쑥 프로젝트인 이 〈종이아빠〉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재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주체는 무대 위 배우 이외의 소품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아티스트, 무대 뒤에서 소품과 인형을 디자인하고 제작해온 박성찬 감독이었다.

'종이아빠'를 비롯해 등장하는 소품이 많아서 작업 기간이 꽤 길었을 거 같은데요?

Q1

페이퍼아트뮤지컬로 결정되고 2015년 1월에 소품 제작에 들어갔어요. 주인공 캐릭터인 '종이아빠'를 비롯해 뮤지컬에 등장하는 40여 개의 소품들을 완성하느라 두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대학로 무대나 제작 환경이 여유롭지 못해서, 촉박한 일정 안에 해내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작업하고 보수하고 또 업그레이드까지 했답니다.

소품 재질이 종이인데, 오랜 시간 훼손 없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요?

Q2

애초 제작 단계에서부터 '종이아빠'를 여러 개 제작했습니다. 작품의 특성상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온전히 종이로만 제작하기엔 문제가 있어서, 천으로도 만들어봤죠. 종이 촉감의 특수재질을 이용해 만든 게 지금의 '종이아빠'죠. 공연이 롱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AS하고 있지만요(웃음).

소품 디자인이나 무대 제작하는 작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Q3

원래는 '아름다운세상'이라는 극단에서 인형극 배우로 무대에 섰었어요. 작은 극단이었고, 그때만 해도 배우가 배우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소품도 만들고 무대장치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더라고요, 만드는 것이. 새로운 재능을 찾았다고 해야 하나? 2003년부터 그렇게 소품이나 무대를 디자인하는 제작에 참여하면서 시작한 거 같아요.

평소 소품 작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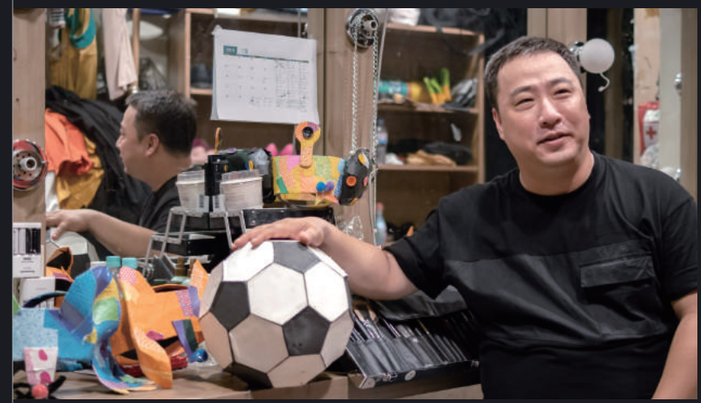
Q4

저는 소품이 그냥 하나의 물건이나 배경, 피사체가 아니라 출연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품을 만드는 일은 생명을 불어넣어 캐릭터를 만들고, 극적 효과를 살리는 작업이에요. 그게 제가 하는 작업의 힘이고요.

그렇다면 '종이아빠'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셨나요?

Q5

2D에 해당하는 종이아빠를 배우가 뒤에서 조종하면서 연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테크닉하면서 판타지하게 구현해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눈과 입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종이'라는 평면적 소재에 입체적 장치를 더한 거죠. 관객들 반응도 좋아 만든 사람으로서 뿌듯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하는 작업에 대한 고단함이나 그간의 소회가 있으시다면?

Q6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아닌 소품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막상 경험해보면 결코 쉽거나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 주변 관계자들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작업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런 노고를 인정해주는 상까지 받고 보니 되려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소품, 인형 디자인은 물론 무대 아티스트로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Q7

무대 앞 못지않게 무대 뒤에서도 예술을 완성해나간다는 마인드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나 팀을 만나 재미있는 작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극단대표이자 연출가로서 무대 예술 전반에 걸쳐 꾸준히 공부하고 활동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팅'하는 일만 남은 거겠죠(웃음).

박성찬 소품디자이너 · 무대감독

인형 및 소품을 제작하는 디자이너이자 무대감독, 극단 '잘한다' 프로젝트 상임 연출, 극단 프로젝트 '하다'의 대표이자 연출가이기도 하다. 〈애기똥풀〉로 아시테지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미술상, 〈나무와 아이〉로 김천국제가족연극제 무대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극단 싹 〈행맨〉 연출로 제37회 대한민국연극제 네트워킹 페스티벌 연출상을 수상했다.

예술 같은 소리한다구요?

예술이 밥 먹여주냐고요?

.

.

.

네, 예술은 공동체의 밥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상상력을 실현하는 예술.

상상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인류가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 정신의 밥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깁니다.

행복한 세상, 예술이 만듭니다.

Artists

52 KAWF 레시피

54 KAWF 상담실

58 KAWF News

60 예술인패스

창작준비금 맛집의 레시피 파헤치기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창작준비금 맛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비밀 레시피를 살펴보자.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맛집 못지않은 멋진 요리를 완성할 수 있다.

Artists Welfare Magazine
예술:
Volume. 31
Summer 2019

01 재료

예술활동증명은 필수조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 외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 예술활동을 증명해주세요.

02 기간

창작준비금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분할신청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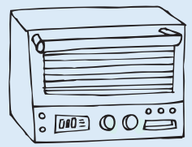
03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인 정보 관련 서류 한 꼬집, 최근 3년 예술활동실적 증빙자료 한 꼬집을 더해주세요.

04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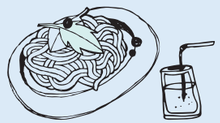
준비된 서류를 한데 모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주세요.

05 심의



창작준비금 심의가 완성되기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06 지원



창작준비금이라는 멋진 맛이 완성됐습니다. 재단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1인당 300만원을 총 5,500명에게)

*** 참여제한,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Tip : 예술활동증명 갱신절차도 잊지마세요!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신청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생충〉을 계기로 다시 보는 표준계약서

·글 임애리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변호사

예술인들은 전통적으로 폐쇄된 시장 구조 속에서 밀접한 인적 관계에 터잡아 거래해 왔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사업자가 예술인의 창작물을 포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독점 계약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예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 반면 크레딧(credit, 저작자의 성명을 저작물에 표시하는 것), 저작권 귀속 문제 등 문화예술 분야에 특수한 권리관계도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임애리 변호사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하고 현재 법무법인 덕수에 재직 중이며, 올 3월 26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담당으로 상담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저작원위원회 저작권 현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법조인과정(2014), 예술의전당 공연기획과정 47I(2015) 등을 수료하였으며,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법률상담관(현재)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는 고시된 것만 9개 분야, 56종에 달하지만 분야별로 표준계약서의 활용 정도는 다르다. 영화 분야에서는 2018년 기준 표준계약서로 계약한 경험이 있는 영화 스태프가 74.8%로 표준계약서의 활용이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2018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이는 영화노조가 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원회 등과 함께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표준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성과다. 2015년 4월 통과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에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도 영화 분야에 표준계약서가 정착되는 데 힘을 실었다. 반면 방송 분야의 경우 아직도 표준계약서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착취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 고시

56종 표준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표준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조나 필수적인 기재 사항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무 제공형 계약과 저작권 이용형 계약이다. 노무 제공형 계약은 영화 〈기생충〉의 스태프들이 체결한 근로계약과 같이 영화, 공연, 방송 등 종합예술 저작물의 완성을 위해 복수의 스태프들이 제작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공연예술 분야의 기술지원 계약, 방송영상프로그램이나 영화 스태프의 근로계약이 이 분류에 해당한다.
반면 저작권 이용형 계약은 예술인이 독립적으로 완성한 창작물을 거래하기 위하여 창작물의 저작권을 화랑, 출판사 등에 위탁·이용허락·양도하는 계약이다. 물론 예술인 간의 공동저작계약, 예술활동 전반의 기획과 관리를 위한 매니지먼트사나 에이전시와의 전속계약, 영화 분야의 투자계약이나 상영계약 등 위 두 가지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도 있다.

노무 제공형 계약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환경, 4대 보험 가입, 부당해고금지 등 실질적인 근로권의 보장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저작권 이용형 계약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상담을 해 보면 예술인 대부분이 정당한 대가의 액수나 지급 방법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 대가로 상대방이 갖는 권리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의외로 간과하곤 한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권리를 줄수록 예술인이 받는 대가는 더 커져야 한다. 예컨대 해외 판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종료 후의 전자출판권, 장래에 개발될 매체에까지 저작물을 제공할 독점적 권리 등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표준계약서보다 상대방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지 반드시 비교해 보고 협상을 통해 권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의 언어를 어려워말고, 계약 체결 전 꼼꼼히 읽어라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모델 계약서로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미리 예측하고 계약 체결을 준비하기 쉽게 해 준다. 더 나아가서 표준계약서는 예술인 개인에게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 이는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읽어 보고 날인만 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 계약의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중요한 조항 일부만이라도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표준계약서가 협상에서 상대적 약자인 예술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준계약서의 연구·개발 과정을 보면 예술인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의견도 공청회 등을 통해 반영하고 있으므로 표준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예술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무조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중요한 조항을 계약 체결 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한 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필자를 찾아오는 예술인들을 만나 보면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보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법률상담을 받고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직은 표준계약서를 소개해 주면 생소해 하는 반응이 많은데 이 또한 나아지리라고 기대해 본다.

예술인이 묻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답하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동안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혹은 사소해서 못했던 질문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자세히 답변해드립니다.

Q 대학로에 있는 극장에서 연극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공연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9시 반은 넘어야 해서 저녁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들을 위한 자녀돌봄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용 가능한가요?

A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신 예술인이 24개월~10세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용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만 12세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대학로 소재의 반디돌봄센터와 망원동 소재의 예술인자녀돌봄센터(예봄센터) 등 2개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활동이 많은 예술인을 위해 최대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로의 반디돌봄센터의 경우 하루 전 사전 예약하실 경우 23시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미술활동, 요리활동, 동화구연 등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와 연령 통합 돌봄으로 긍정적인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원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시간만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신 후, 온라인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신청해주세요.

문의: 반디돌봄센터 02-741-0347
예봄센터 02-3143-1919

Q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아직도 작업을 의뢰할 때 서면계약서 없이 먼저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저작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저작권 등 법, 제도 등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은 예술인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이같이 예술현장에서 필요한 저작권 지식 및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한 실무교육과 예술계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은 상·하반기에 각 1회의 정기교육을 진행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개최합니다. 분야별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의 강의, 표준계약서 소개 및 활용사례, 계약 체결 시 유의점,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 홈페이지(http://kawf.khcu.ac.kr/)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으니 오프라인 교육 전에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작물과 저작권, 저작권의 내용 및 행사, 저작권 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문화예술 계약,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시 대응방안까지 총 5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의당 3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02-3668-0200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 도입

애니메이션 분야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등, 총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유통 환경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없었다.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애니메이션 방영채널과 방영기간 등에 대한 계약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작사에서 작품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작품 수정 횟수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불명확한 계약 관계에 따른 과도한 추가 작업,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의 작가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영화(9종), 대중문화(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이에 문체부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방송사,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11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②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③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④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시에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시간 및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시나리오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명시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명시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유 형	주요 내용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 방영권 범위 구체화 · 방송편성시간및편수증감시절차 · 성범죄 관련 규정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 저작권 귀속 · 우선협상권 · 성범죄 관련 규정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시나리오작가 참여 단계별 대가 지급 · 검수 및 수정 · 성범죄 관련 규정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창작료 단계별 대가 지급 · 검수 및 수정 · 성범죄 관련 규정

–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 시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9년 6월 24일(월), 예술인을 위한 융자 제도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 대상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융자 상품 중 우선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2%(19년 3/4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문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사업 시행 T/F팀
02-3668-0238~9 / artloan@kawf.kr/ www.artloan.kr

Artists Welfare Magazine
예술:
Volume. 31
Summer 2019
Volume No. 31

표준계약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받은 영화 〈기생충〉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여러 면에서 화제다. 수상과 더불어 예술계의 눈길을 끈 것은 영화에 참여하는 전 스태프들과 주 52시간 근로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실제 계약서에 의거해 촬영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영화 〈기생충〉에 참여한 스태프 35명과 제작사인 바른손이앤에이에게 총 115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스태프에게 총 560만 원, 제작사에게 총 59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촬영 기간(2018년 2월-9월) 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에 해당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나가기 위해 2014년부터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및 회사가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재단 관계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예술인뿐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통해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도 50%의 지원 혜택을 주어 자발적으로 불공정한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에 영화 〈기생충〉을 통해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이 재차 인식된 만큼, 영화계뿐 아니라 다른 장르의 예술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대,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가 6월 3일(월), 만화가의 지위와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분야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특히나 현재 1,393명(2019.5.28. 기준)인 만화 분야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의 증가를 위해 홍보를 강화, 만화가들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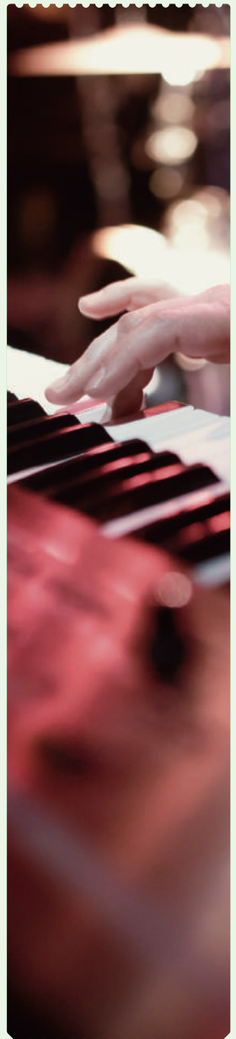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희섭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만화 분야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예술인 복지사업의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4월 12일(금),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등 협력 ▲예술인에게 실효성 있는 산재보험 보호 방안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공단 직영 병원 이용 시 예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예방 제공(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할인 혜택) ▲기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에 설립되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나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개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의 가입을 돕고,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74명의 예술인이 가입, 140명이 약 18억 원의 산재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Volume.31

ART PASS

Artists Welfare Magazine

artpass.kawf.kr

정동극장 경주

Silla:에밀레

2019. 3. 19(화)~9. 28(토)
R석 30,000 원
S석 2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10,000 원

정동극장 서울

청춘만발 경연무대

2019. 7. 11(목)~8. 30(금)
전석 1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국립국악원

2019 국립국악원 요일별 기획공연 목요풍류

2019. 4. 4(목)~ 10. 31(목)
전석 2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국립국악원

2019 토요명품공연

2019. 1. 5(토)~12. 28(토)
A석 20,000 원
B석 1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국립국악원

2019 수요춤전

2019. 2. 20(수)~9. 25(수)
A석 20,000 원
(9월 25일-전석 50% 할인)

예술인패스 할인 1 30%

국립국악원

2019 금요공감

2019. 5. 3(금)~11. 29(금)
A석 20,000 원
B석 1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성균소극장(사립)

50일간의 승무이야기

2019. 1. 7(월)~12. 30(월)
전석 3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소극장 혜화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2019. 8. 9(금)~8. 25(일)
전석 3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콘텐츠박스

쉬어 매드니스

2015. 11. 12(목)~오픈런
전석 35,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10,000 원

매지클

1미터 마술공연

2019. 1. 19(토)~오프런
전석 20,000 원
(예매가 15,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6,000 원

예술의전당

오케스트라 앙상블 서울 OES의 베토벤 시리즈 III(2018~2020)

2019. 8. 30(금)
R석 60,000 원
S석 50,000 원
A석 30,000 원
B석 20,000 원
C석 1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40%(1인 2매)

예술의전당

백민정 피아노 독주회

2019. 8.23.(금)
전석 2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10%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뮤지컬 〈헤드윅〉

2019. 8. 16(금)~11. 3(일)
R석 99,000 원
S석 77,000 원
A석 55,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30%(1인 2매)

예그린씨어터

망원동 브라더스

2019. 7. 19(금)~8. 25(일)
전석 2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15,000원 (티켓가)

대학로 미마지 아트센터 눈빛극장

Let's Dance, CRAZY!! _SACHOOM2

2018. 11. 10(토)~2019. 8. 31(토)
전석 5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후암스테이지

일등급인간

2019. 8. 20(화)~8. 25(일)
전석 15,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10,000 원

후암스테이지

내면 아이

2019. 8. 20(화)~8. 25(일)
전석 15,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10,000 원

동국대학교 이해랑예술극장

연극 〈알앤제이(R&J)〉

2019. 6. 28(금)~9. 29(일)
R석 55,000 원
무대석 55,000 원
S석 45,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30%(1인 2매)

NH아트홀 판타스틱전용관

국악 뮤지컬 〈판타스틱〉

2018. 1. 1(월)~오픈런
VIP석 60,000 원
R석 50,000 원
S석 4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40%

대학로 익스트림씨어터 1관

수상한 흥신소 2탄

2019. 5. 2(목)~오픈런
전석 35,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10,000 원

익스트림씨어터 2관

#나만빼고

2019. 7 .5(금)~오픈런
전석 3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10,000 원

아양아트센터

연극 〈월곡동 산 2번지〉

2019. 8. 24(토)
전석 1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대구오페라하우스

제17회 DIOF 〈대구국제오페라어워즈_본선3〉

2019. 8. 31(토)
전석 1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2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2019 커피콘서트 VI. 〈추가열 포크 콘서트〉

2019. 8. 21(수)
전석 15,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5,000 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브런치콘서트] 열두 번째 이야기_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2019. 8. 28(수)
일반석 25,000 원
사이드석 10,000 원
(전당 기본 할인 적용 불가)

예술인패스 할인 50%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요상설공연

2019. 3. 16(토)~10. 19(토)
전석 17,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의정부예술의전당

루루섬의 비밀

2019. 8. 28(수)~8. 29(목)
전석 15,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30%

용인포은아트홀

2019 일동제약과 함께하는 마티네콘서트_8월

2019. 8. 21(수)
전석 15,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20%

수원SK아트리움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시즌4(8월)

2019. 8. 27(화)
전석 12,0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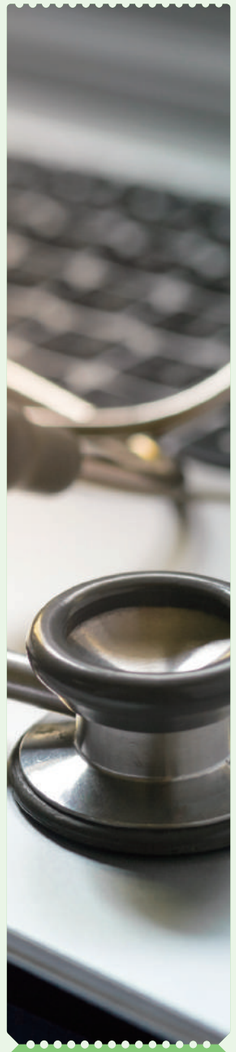
예술인패스 할인 20%

천안예술의전당

Paris Modern and Jazz (파리의 모던과 재즈)

2019. 8. 24(토)
전석 10,000 원

예술인패스 할인 50%



Volume.31

ART PASS

Artists Welfare Magazine

artpass.kawf.kr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예술인 건강 혜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근로복지공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예술인을 위한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예술인패스 소지자가 혜택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할인(공단 직원 수준으로 제공, 일반수가 대비 약 50% 내외), 독감예방접종 할인, 업무상 특별진찰 시 승인 전 치료 서비스 제공(산재 신청 시 승인 전이라도 공단 소속 병원에서 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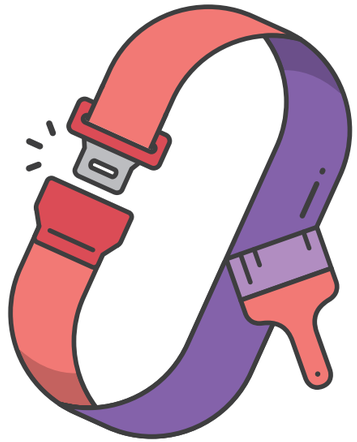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정보(전국 7개 병원)**

연번	병원명	소재지	건강관리센터 정보
1	인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032)5000-222 www.kcomwel.or.kr/incheon
2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일동)	031)5001-112 www.kcomwel.or.kr/ansan
3	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055)2800-481 www.kcomwel.or.kr/changwon
4	순천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1길 24(조례동)	061)7207-162 www.kcomwel.or.kr/suncheon
5	대전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042)6705-196 www.kcomwel.or.kr/daejeon
6	태백병원	강원도 태백시 보드미길 8(장성동)	033)5803-153~4 www.kcomwel.or.kr/taebaek
7	동해병원	강원도 동해시 하평로 11(평릉동)	033)5303-251 www.kcomwel.or.kr/donghae

더 많은 생활 속 할인은 예술인패스 홈페이지(artpass.kawf.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예술인패스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인패스를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패스 모바일 페이지(first.kawfartist.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2-3668-0200, artpass@kawf.kr



예술가의 안전벨트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산재보험을 통해 직업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보험료의 50-9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류 준비

계약서
가입신청일 현재 유효한 (보수목적의) 예술활동 계약서

통장사본
보험료 지원금 환급 계좌

온라인 가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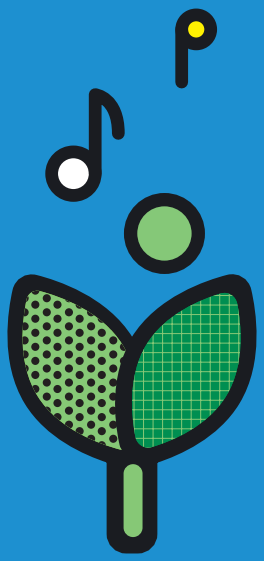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입 완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가입대행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 승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02-3668-0200



예술, 삶의 힐링을 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